

“사찰 음용수 오염 대책 마련해야”



옥천불교사암연합회는 3월 26일 한용택 옥천군수 및 군 관계자와 옥천군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옥천 지역 사찰 음용수의 60%가 오염됐다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미 지난해 7월 발표됐지만, 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사찰 참배객들의 건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옥천불교사암연합회 지역발전 간담회 개최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조사는 관내 53개의 사찰 중 5곳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48개 사찰의 수질 상태까지 부적합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하다”며 “2007년 조사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법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 검사 자체를 군 차원에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사찰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군으로 문의하면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옥천사암련



대구 보성선원 신임주지 한복 스님은 3월 25일 취임법회와 보혜 스님 열반 5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보성선원 한복 스님 취임법회

보혜선사 열반 5주기 추모재 봉행도

대구 보성선원 창건주 보혜선사 열반 제5주기 추모재 및 신임주지 한복 스님 취임법회가 3월 25일 대구 보성선원 대웅전에서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한복 스님은 “창건주 보혜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포교에 앞장 서겠다”며 “어린이 청소년 법회, 불교대학 운영, 큰스님 초청 일요법회, 봉사단 조직, 사이버 포교 등의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

남양주 봉선사서 개최

3월 21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 설법전에는 ‘백팔대장회문’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은 봉선사가 지난 3월 15~21일까지 개최한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의 회향법회가 봉행되는 날이었다. ‘니르바나 정진 산림 대법회’는 출가·열반전을 맞아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가르침을 되새기고 올바른 신행문화를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1주일 간 ‘팔상성도’에 관한 스님들의 법문으로 진행됐다. 법회 첫째 날인 15일 회주스님의 ‘위대한 버림과 출가(도솔래의

상) 법문을 시작으로 회향일인 21일 월운 스님의 ‘열반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날(쌍림열반상)’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법회기간 동안 <금강경> 독송, 백팔장회문 독송,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 석가모니를 정진 등도 이어졌다. 회향법회에서 월운 스님은 “부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열반에 드신 것은 우리에게 시현(示現)하기 위함이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다”며 “우리는 업으로 인해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내 코로 숨 쉴 수 있고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문운정 본설위원

국군간호사관학교 신입생 환영법회

국군간호사관학교 52기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 법회가 열렸다. 3월 25일 호국 약천사에서 열린 법회에 청량산 보국사 주지 지행 스님, 육군본부 군종감 이원우 법사를 비롯한 간호사관 생도, 치료중인 일반 병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육군 본부 군종감 원오 법사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며 “군인이라는 직업도 행복하게 살기위해 선택한 길 일 것이니 복무기간 동안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손효선 기자

“전통·현대 어우러진 교육을”

동학사 승가대학 제17대 학장 해주 스님 취임법회

동학사 승가대학 제17대 학장에 임명된 해주 스님의 취임법회가 3월 27일 동학사 강설전에서 봉행됐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마곡사 주지 범용 스님, 동학사 주지 요명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학장 취임을 축하했다. 지관 스님은 법어를 통해 “동학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강연 전통이 매우 깊다”며 “승가대학 학장으로 취임하는 해주 스님이 포부로 밝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교육’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주 스님은 취임사에서 “동학사 승가대학의 오랜 전통을 잘 계승하면서 경학(經學)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스승님의



동학사 승가대학장에 취임한 해주 스님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과 말, 선(禪)과 교(敎)가 들이 아닌 법으로 부처님 해명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손효선 기자

속초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

속초시 공무원불자회 창립법회가 3월 21일 속초시문화회관에서 봉행됐다. 속초시공무원불자회는 박영태 수질환경사업소장을 초대 회장으로

앞으로 매년 2차례씩 시정 상황실에서 조찬법회를 여는 한편, 정기 법회와 성지순례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원봉사 등도 펼친다. 이날 법회에는 신흠사 회주 무산 스님을 비롯해 신흠사 본말사 스님들과 속초시 공무원, 강원도의원, 신흠사 복지원 산하단체 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 앞서 보리수예술단의 국악공연과 해오름의 난타 등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여수령 기자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로”

전등사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역민들에게 산문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4월 3일 오전 8시 강화 길상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제3회 전등사기(旗) 강화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는 1000여명의 지역민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전등사가 지난 2006년부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중노년층의 생활체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게이트볼 대회와 함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마련하는 무료진료 서비스도 펼쳐진다. 전등사 신도들이 마련한 점심공양과 공연으로 흥겨운 어울림 마당이 펼쳐진다. (032)937-0125

봉은사 선덕스님 초청법회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가 5월 4일까지 ‘새봄맞이 선덕스님 초청법회’를 펼친다. ‘선덕(禪德)’은 사표가 되는 선지식을 뜻하는 용어로, 각 선원의 선원장 스님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3월 30일 봉은사 법당에서 현산 스님(구례 화엄사 선등선원장) 초청 법석이 펼쳐지는데 이어 4월 13

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광원암 임주), 20일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27일 정광 스님(문경 봉암사 종립특별선원장), 5월 4일 고우 스님(前 태백산 각화선원장)이 법문을 한다. 4월 6일 초하루 법회에서는 주지 명진 스님의 법문이 마련된다.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02)511-6070 여수령 기자

제108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안내

귀의 삼보 하옵고...
무자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 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 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서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범어사 금강계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오니,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희동참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마하야나바라밀

3화상 전계대화상 서해 흥교
갈마아사리 해월 선래
교수아사리 제월 통광

7중사 존중아사리 서림 대성
서암 해관·일운 담연
정사 도근·태인 동산
보륜 지정·금유 인각

● 동참금 : 5만원 (₩ 50,000)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39701-01-140693 (예금주: 범어사)
● 접수 : 원주실 (051)508-3636, 3721
 중무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 (암)

입재 : 불기 2552년 4월 18일 (음력 3월 13일)
회향 : 불기 2552년 4월 20일 (음력 3월 15일)] 3일간
장소 : 범어사 금강계단(보제루)

● 동참금 : 5만원 (₩ 50,000)
● 계좌번호 : 국민은행 939701-01-140693 (예금주: 범어사)
● 접수 : 원주실 (051)508-3636, 3721
 중무소 (051)508-3122~5
 범어사 각 말사 (암)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釋利大本山 梵魚寺
金井山 梵魚寺